

경제

‘암체’ 대기업

3분의 1이 혜택만 챙기고 동반성장협약 빠져

동반성장협약 이행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면제 혜택만 누리고 재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대기업이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반성장협약 제도는 대기업이 중소기업 협력을 지원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취지에서 2007년 9월 도입됐고, 공정위는 대기업들의 이행 실적을 평가해 등급에 따라 직권 또는 서면실태 조사 면제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최우수 등급을 받은 포스코와 현대차, 기아차 등 3개사는 모두 협약을 유지했지만 우수 등급에서 11개사, 양호 등급에서는 12개사가 재협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22일 광주 조선포대 IT홀에서 삼성·현대차·SK·LG·롯데 등 5대 그룹이 참여하는 채용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설명회에는 지역 대학생 400여명이 참석했다.

① 뚜렷한 목표 세우고 발품 팔아라

■ 조선대서 5대그룹 취업설명회 ... 인사담당자들이 말하는 노하우

“지방대학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역 시장을 잘 이해하는 장점이 있고, 다만 많은 지방대 학생들이 지레 겁먹고 도전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전하십시오.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삼성·현대차·SK·LG·롯데 등 국내 5대 그룹 인사담당자들이 지역인재 채용을 위해 23일 오후 조선포대를 찾았다. 5대 그룹이 한 데 모여 지방대학에서 설명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고용노동부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공동으로 행사를 마련했다.

5대 그룹의 인사담당자들은 지역별로 특화된 채용 수요와 지역산업 정보 등을 설명하고, 취업 성공 전략 등 노하우를 전달했다.

이들은 대기업 취업전략 키워드로 ‘창조’, ‘열정’, ‘전문’, ‘협력’ 등을 제시했다.

◇목표를 뚜렷이 세우라=“발품을 판만큼 결실이 크다”(롯데)

② 40년 다닐 직장 패기 갖고 도전하라

③ 자신의 약점 알아내 반드시 보완하라

④ 학점 3.0 이상이면 스펙보단 경험

⑤ 인턴 기회 있으면 무조건 참가하라

‘대학 4년을 위해 당신은 얼마나 공부했는가, 그렇다면 직장생활 40년을 위해서는 얼마나 준비해야겠는가?’ 대기업 인사담당자들은 대학 1~2학년 때부터 준비하라고 조언했다.

대신 평생을 생활해야 할 곳이기 때문에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분야를 명확히 찾으라고 말했다. 또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사회생활할 것인지, 소신을 가지라고도 했다.

◇패기를 갖고 도전하라=“대학 4년 다니려고 재수도 하는데, 40년 다닐 직장인데 무조건 떨어야 하지 않겠는가”(롯데)

하라(삼성) 인사 담당자들은 무작위로 스펙을 쌓기보다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 커리어비전을 쌓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세계 반도체 업계 처음으로 20나노급 낸드 플래시 및 D램 양산을 시작했다. 삼성전자는 이로써 메모리 반도체 선두 업체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는 22일 오전 경기 화성 나노시티 캠퍼스에서 ‘메모리 16라인 가동식 및 20나노 D램·플래시 양산’ 행사를 하고 있다. 행사에는 이근희 삼성전자 회장과 권오연 디바이스솔루션(DS) 사업총괄 사장, 이재용 사장 등 경영진과 소니 나카가와

◇인턴을 공략하라=공채 수는 줄이고 인턴은 늘려가는 추세다. 2~3개월 인턴 과정에서 다면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인턴은 공채보다 경쟁률이 낮다는 장점이 있다. 재학생이나 대외로 하기 때문에 졸업생이나 석·박사와는 경쟁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스펙보단 다양한 경험이다=“학점 3.0만 넘어면 다양한 경험을

세계 반도체 업계 처음

삼성전자가 세계 최대 규모의 메모리 반도체 생산라인인 16라인의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또 세계 반도체 업계 처음으로 20나노급 낸드 플래시 및 D램 양산을 시작했다.

삼성전자는 이로써 메모리 반도체 선두 업체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는 22일 오전 경기 화성 나노시티 캠퍼스에서 ‘메모리 16라인 가동식 및 20나노 D램·플래시 양산’ 행사를 하고 있다. 행사에는 이근희 삼성전자 회장과 권오연 디바이스솔루션(DS) 사업총괄 사장, 이재용 사장 등 경영진과 소니 나카가와

유타가 부회장을 비롯한 글로벌 IT

업체 관계자 등 500여명이 참석한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스티브 발머 최고경영자(CEO), HTC의 세이 왕 회장, 델의 제프 클라크 부회장, 레노보의 양위엔칭 CEO, IBM의 프랜 오설리번 부사장 등은 영상 메시지를 보내 삼성전자가 낸드 플래시를 주력으로 양산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메모리 16라인을 가동하는 한편 업계 처음으로 20나노급 D램을 양산하는 것을 축하한다.

삼성전자는 이와 함께 세계 최초로 20나노급 2Gb(기가비트) D램의 양산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20나노급 DDR3 D램은 지난해 7월 선보인 30나노급 DDR3 D램과 같은 세계 최고의 성능을 구현하면서도 생

산성은 약 50% 정도 높이고 소비 전력은 40% 이상 줄인 그린 메모리 제품이다.

김영호 대한지적공사 사장

영양에서 현장이사회 개최

김영호 대한지적공사 사장이 23일 영양군 영양읍 영양에서 현장이사회를 열어 지적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와 애로점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영양 땅호리는 지난 16일 공포된 지적재조사특별법 시행에 앞서 시범사업을 실시한 곳으로, 김 사장 등 이사들은 이곳에서 이사회를 열어 지적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와 애로점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대구 공동정책발굴 TF’ 구성

광주테크노파크는 22일 광주시와 대구시가 조광역사업 공동정책과제 발굴을 위해 23일 대전 유성에서 ‘광주·대구 공동정책발굴 태스크포스’를 구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태스크포스는 양 지역의 지자체와 지역발전연구원, 테크노파크 등 지역산업분야 전문가가 공동 참여한 다.

태스크포스는 지난해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한 ‘대구-광주 연계협력권’ 사업의 4가지 핵심전략인 ‘IT·광기반 융복합 산업의 거점 조성’, ‘그린에너지 산업 및 의료산업의 권역 간 연계 활성화’, ‘비즈니스서비스 허브 구축

및 화학분류 창조’, ‘초광역 연계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해 공동정책과제를 발굴한다. 또 ‘차기 대선의 대응방향’ 등의 다양한 주제를 놓고 양 지역 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특화 정책도 발굴할 계획이다.

유용국 광주테크노파크 원장은 “양 지역은 아직도 지역 내 총생산액(GRDP)이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어 독자적으로 빠른 산업적 성장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상호 감점기반을 연계한 초광역 연계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Table with economic indicators: 코스피지수 1800.55 (-53.73), 코스닥지수 471.41 (-6.10), 금리 (국고채 3년) 3.49% (-0.01), 원·달러 환율 1179.80원 (+29.90)

지난 여름 운전자들이 가장 많이 찾은 휴가지는 에버랜드-해운대-남이섬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름 인기 휴가지 에버랜드-해운대-남이섬 順

내비게이션업체 현대엔소프트는 지난 7~8월 자사 제품인 ‘뽕피’, ‘지니’ 이용자들의 목적지 검색 내역 1100만건을 분석한 결과 놀이공원의

‘에버랜드’가 두 달간 약 37만건의 검색 수를 보여 가장 많았다고 22일 밝혔다. 이어 해운대(약 36만건), 남이섬(약 35만건), 거가대교(약 32만건), 태종대(약 29만건) 순으로 분석됐다.

현대엔소프트는 이 기간에 ‘바닷가’ 또는 ‘섬’ 카테고리에는 속하는 목적지가 다른 분야보다 2배가량 검색수가 증가해 바닷가가 여름 대표 휴가지로 꼽혔으며,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오션월드’, ‘블루윈’ 등 워터파크 역시 상위에서 랭크됐다

연습스

대인동심일부동산.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나주혁신도시 전문.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나주혁신도시에 투자하십시오! 상업용지 • 주차장용지 • 이주자택지 • 협의자택지

동명공인중개사. 【수익성 높은상가 매매】 서구 신가건물 5800㎡ 매매가 60억원(용자 34억원)

나라공인중개사. 펜션별 매도. 전복순창군 북동면 대항리 펜션별 2007년 준공

중앙공인중개사. 상가건물. ☆.북구 운암동 문화예술회관 정문앞 병의원

금당 공인중개사. 감정이 이하. ☆.담양군 창평면 대지697 건물329 노인요양시설용